

전시·공연·영화...가볍게 즐기세요



올 첫 '문화가 있는 날' 내일 광주·전남 풍성한 문화행사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이다. 지난 2014년부터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고 있는 날로 전국의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등 다양한 문화 시설의 문턱을 낮춰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획이다. 2016년 첫번째 문화가 있는 날(27일)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이 문화 애호가들을 찾아간다.



감성 보이스 거미 '집콘' 취업준비생 위로 공연

네이버 TV캐스트 실황중계

'바닥 프로젝트' 초청 유·스퀘어 음악회

문화전당 무료 관람 나주박물관 국악 공연

멀티플렉스 영화관들 5시~9시 할인 혜택



버스킹 밴드 '바닥 프로젝트'

유·스퀘어는 매달 문화가 있는 날 진행하고 있는 '아름다운 유·스퀘어 음악회'(오후 6시) 올 첫번째 행사에 버스킹 밴드 '바닥 프로젝트'를 초청했다.

임웅(보컬, 어쿠스틱 기타), 김영훈(보컬, 우쿨렐레), 김현무(대피리, 퍼커션)로 이루어진 '바닥 프로젝트'는 친숙한 가요와 창작곡 등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선보인다. 매달 골방 음악회를 열어 팬들과 소통하고 있는 바닥 프로젝트는 지난해 2집 '연중 맑고 흐림'을 발표했다.

유·스퀘어 문화관은 또 동산아트홀에서 공연 중인 로맨틱 코미디 '연애를 부탁해'를 50% 할인된 1만5000원에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국립나주박물관은 국악, 마술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된 상반기 공연 일정을 확정하는 등 올해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알차게 준비했다. 첫 행사는 오후 6시30분 이벤트홀에서 열리는 국악 '신나는 흑부리 장구다'. 이어 4월에는 '테크니컬 매직쇼'를 개최하며 이어 매달 페루 안데스 민속 음악 전문 공연단 '가우사이'의 '안데스 음악여행', 극단 '까치동과 가람'의 연극 공연, 한국심포니에타 앙상블의 바이올린 연주회 등을 열 예정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이날 개방 시간을 연장하고 전시 무료 관람 기회도 제공한다. '아시아와 근대, 비껴서다', '플라스틱 신화들', '이곳, 저곳, 모든 곳 : 유라시아의 도시' 등의 전시를 개최하고 있는 문화창조원은 오후 6시부터 9시 입장 관객을 대상으로 무료 관람 기회를 제공한다. 그밖에 문화정보원과 어린이문화원 어린이도서관도 오후 9시까지 연장 개방한다.

지방의 문화회관들도 영화 상영회를 개최한다. 강진아트홀에서는 '러브 레터'를 상영하며 장성문화회관(김은 사제들), 영광 예술의전당(관상)에서도 군민들에게 다양한 영화를 보여줄 예정이다.

이번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중 눈에 띄는 건 가수 거미가 청년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 공연이다. '집콘(집들이콘서트)'은 집이나 일상 공간 가까이에서 누구나 문화를 즐길 수 있다는 의미를 전파하고자 기획된 캠페인으로 지난해 조규찬, 윤종신, 손민아 등 다양한 이들이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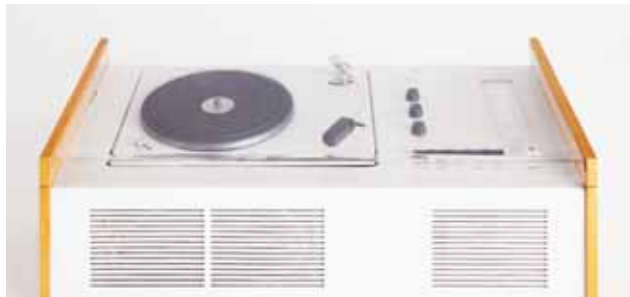
거미는 오후 7시 취업준비생의 집 '청년희망 아카데미'에서 '취준생의 집-희망을 노래하다'를 진행한다. 이날 공연에서 거미는 히트곡 '그대 돌아오면',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 '기억상실', '미안해요' 등을 비롯해 그 동안 '북면가왕' 등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서 선보여 많은 사랑을 받은 '양화대교', '추억으로 가는 당신' 등을 들려준다.

공연 실황은 네이버 TV캐스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며, 모바일과 웹을 통해 만날 수 있다.

그밖에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영화관은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5000원에 관람할 수 있는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한편 찾아가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인 '동(洞)!(동(童)!동(動)!) 문화놀이터' 사업은 이달 13개 어린이 시설의 방문을 시작으로 한 해 동안 400곳의 어린이집, 유치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릴 계획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독일 산업디자이너 디터 램스가 디자인한 레코드 플레이어(왼쪽)와 라디오.



60년전 디자인 맞아?...디터 램스 제품 광주 전시회

산업디자인계 세계적 거장 에스플렉스 오픈 기념 3월 20일까지 특별전

산업디자인계에서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독일 디터 램스(Dieter Rams)의 디자인 제품들이 광주를 찾아왔다.

에스플렉스 광주점(광주시 광산구 수완동)이 오픈을 기념해 'Creativity from DIETER RAMS'전을 3층 갤러리에서 3월20일까지 개최한다.

디터 램스는 1955년 독일 'Braun'사에 입사한 후 1998년 은퇴할 때까지 역사에 길이 남을 획기적인 제품들을 만들었다.

오디오, 비디오 카메라, 시계 등 가전 뿐만 아니라 가구까지 그의 제품들은 기능성에 충실하면서도 심플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애플 수석디자이너 조나단 아이브는 "사실은 나도 디터램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그를 존경한다"라고 고백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스피커, 라디오, 헤어 드라이어, 커피메이커 등 약 60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지금보기도 세련된 감각이 엿보이는 제품 30여종을 만날 수 있다.

'백설공주 관'으로 불리는 레코드 플레이어 'BRAUN SK4'(1956)은 현대 모든 라디오와 오디오의 기초 모델이 됐다. 주

파수 표시판과 조절 장치는 윗면, 스피커는 앞면을 향해 설계했다. 철판, 플라스틱, 나무 등 다양한 소재를 사용했고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투명 아크릴 덮개가 돋보인다.

빨강, 노랑 등 원색을 사용한 헤어드라이기 'Braun HLD 4'(1970)는 현재까지도 표준 모델로 남아 있다. 완곡한 선으로 마무리된 직육면체는 크기를 축소할 수 있어 여행용으로 이상적이다. 찬 공기가 들어와 따뜻한 공기로 나가는 구조를 장난스럽게 시각화해 인기를 끌었다.

한편, 에스플렉스는 아동복매장, 제과점, 레스토랑, 어린이책방 등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이다. 문의 010-9343-332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타란티노의 '헤이트풀8' 상영회

광주극장 30일 오후 4시 30분 영화 상영후 조대영씨와 대화도

'헤이트풀 8'은 쿠엔틴 타란티노의 팬이라면 놓치기 아까운 영화다.

광주극장은 오는 30일 오후 4시30분 '헤이트풀8' 특별 상영회와 대화의 시간을 진행한다.

'헤이트풀 8'은 각자 비밀을 감춘 채 눈보라 속 고립된 채 서로에 대한 불신과 증오로 광기에 휩싸인 8명이 보내는 하룻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죄수를 이송해가던 교수형 집행인은 우연히 현상금 사냥꾼, 보안관과 합류하게 되고 눈보라를 피해 산장으로 들어선 4명은 그곳에서 연합군 장교, 이방인, 리틀벤, 카우보이 등 또 다른 4명을 만나게 된다.

사무엘 L. 잭슨, 커트 러셀, 제니퍼 제이슨 리, 팀 로스, 마이



클 매드슨 등 쟁쟁한 배우들의 참여와 함께 엔니오 모리코네가 음악을 맡아 더욱 화제가 된 작품이다.

영화 상영후에는 영화의 집에서 '타란티노의 '헤이트풀8' 이렇게 봤다'를 주제로 영화인 조대영씨와 함께 토크 시간도 갖는다. 문의 062-224-585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어두운 겨울 강산에 핀 꽃 김남주 시인'

'이매진도서관' 내달 1일 평전 출판 기념 강연

지난 8일 개관한 광주시 동구 '이매진 도서관'이 2월1일 오후 6시 '김남주 평전' (꽃자리) 출판 기념 강연을 연다.

'어두운 겨울 강산에 핀 꽃 김남주 시인'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저자

김삼웅(사진) 전 독립기념관장, 한중호 '도서출판 꽃자리' 대표, 김삼웅 '윤상원 기념사업회' 이사장 등이 참여해 김남주 시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또 목사이자 소리꾼으로 활동하는 안상



순씨가 공연과 함께 판소리에 관해 들려준다. 사회는 임의진 메이를 관장이 나선다. 이매진 도서관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독서교실, 작가초

청 만남 등을 꾸준히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010-4132-8160. /김용희기자 kimyh@

http://www.hankooktea.co.kr

한국제다

대한민국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감봉 Set

다담 Set

우전감로

감사 Set

한국제다는 10만평의 자가농장과 60년의 제다各種유기능 제다 대한민국 식품명인 선정 국제 녹차 품평에서 최우수상 수상 2009년 식품평에서 1등상(금상) 수상 L.A外 3개국 수출증 ISO 22000 인증 획득

전 세계로 나가는 아시아나 기내에 엄선된 名人의 차만 남품 名節의 高貴한 선물은 名人이 만든 名茶를 권합니다.

식품명인지정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